

[로스쿨 소식]

〈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〉 발표회 개최

1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오수근)는 「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」에 관한 발표회를 지난 11월 16일(월) 16:00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대회의실)에서 개최하였다.

2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이사장 오수근)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(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

법학전문대학원 원장)의 연구과제로 진행해온 “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”의 연구 결과는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교수(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)가 발표하고, 지정 토론자로는 강경선 교수(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, 김은실 사무원(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), 박현경 교수(영산대학교 법률학과), 전지성 법조팀장(매일경제)이 참여하였다.

3.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, 유사 범조직역 종사자,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입학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. 이를 위해 입학전형도 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다르게 설계되어 학부성적과 어학 점수를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도 최저 등급제로 한다.
- (2)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은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재택 수업을 병행하고,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원격 수업에 협력 대학원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.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최소 4년간 야간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법학전문석사(JD)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(3) 본 연구의 도입 방안은 2018년 3월에 총 6개교 총 450명 정원의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를 제안하고 있다.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야간 과정을 병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다만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원전부를 야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한다.

4.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“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문호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,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할 것”이라며, “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